

‘조국 사태’ 고개숙인 송영길… “청년 공정가치 상실에 사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 측 의견 청취, 조치 논의”

부동산 관련 대안마련 등 예고
“실수요자 위한 금융시스템 필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꼽히는 여론 고위급 인사들의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조국 사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에 사과한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라며 지난 일주일간 경청한 국민과 민주당 당원 의견에 이같이 화답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민심 수습 차원에서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송대표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본인·직계가족 ‘입시·취업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에 대한 즉각 출당 조치 및 무혐의 확정 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

해자 측 의견을 청취해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다만 송대표는 당내 일부 인사 등이 ‘조국 사태’ 사과에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문제는 ‘합법적’이라고 해도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분리해서 말씀 드린 것”이라며 “(관련 논란에) 조 전 장관과 이찬한 전 대표도 사과했다. 당은 청년들에 대한 공정 가치 상실에 대해 사과하고 그 마음을 안아야 하기에 우리 세대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송대표는 정부·여당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안 마련도 예고했다. 부동산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데다 다양한 국민의힘에서 발 빠르게 대안 마련을 하자 민주당이 위기의식까지 느낀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차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값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2만호 시범 공급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3%이하 이하로 대출해주는 시스템

구축 및 150만 LH, 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종합부동산세 엄격 적용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무주택 실수요자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10% 추가 완화 등을 약속했다.

송대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논란에 “민주당은 ‘백신이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정부와 협력해 백신의 차질 없는 확보와 글로벌 백신생산기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 송대표는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검찰 조직 문화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언론 개혁 역시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사태에 사과한 데 따른 당내 반발 무마 차원에서 ‘검찰·언론 개혁 추진’ 의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SW·디지털 핵심인재 28만명 양성 추진

고용부, 인력양성대책 이달중 마련
“인력난 중소기업 지원 강화할 것”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이달 중 소프트웨어(SW) 인력양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클라우드시스템 컨설팅업체 메가존클라우드에서 SW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디지털 핵심인재 18만명 양성을 추진 중이다.

최근 IT 업계를 포함 제조·서비스업 등에서 SW 관련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영세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안 장관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SW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6월 중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SW 인력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

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플랫폼업 등 분야별 특화 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장관은 “인력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빅데이터·게임 등 분야별 선도기업, 관련 협회가 현장을 기반으로 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김병재 대령이 고(故)이기백 소위의 아들 이한중 씨(가운데)와 며느리 박경희 씨(오른쪽)에게 무공훈장을 전도 수여하고 있다. /해군

해군, 참전용사 유족에 무공훈장 수여

해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2일 양일간 참전용사들의 유족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며 전쟁 영웅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 기간 동안 해군은 6명의 유가족 가정을 찾아 화랑무공훈장과 감사패, 건강식품 등을 전달하고 국난 극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고인과 유가족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2일 해군은 무공훈장 전도 참전용사는 고(故) 임상의 소령, 고(故) 이기백 소위, 고(故) 황대석 원사, 고(故) 이강원 상사, 고(故) 이계식 중사, 고(故) 이석규 병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군은 ‘6.25전쟁 무공훈장 찾기’ 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3명의 대상자를 찾아 훈장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공정위, 할리스커피에 시정명령 부과

가맹점 현황 미공개 행위 등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케이지할리스에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1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그 이전에 36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51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등의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방부 軍에 ‘음료수 냉장고’ 보급

장병들의 여름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는 2일 병영생활관 내 휴게실과 식당 등에 ‘음료수 냉장고’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업소용 ‘쇼케이스 냉장고’로 불리는 음료수 냉장고는 한쪽 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 보관된 내용물을 볼 수 있다. 이 냉장고는 사관후보생을 교육하는 충북 괴산의 육군 학생군사학교 등에 이미 설치된 바 있다. 훈련 전후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어,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이다.

음료수냉장고가 설치되기 전에는 간부연구실이나 취사장에 설치된 냉장고에 제한적으로 식수와 음료를 시원하게 보존할 수 있었지만, 이 냉장고의 설치로 시원한 음료의 섭취가 훨씬 수월해졌다.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을 시작으로 육서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전군에 1만 2000여 대의 음료수 냉장고를 설치할 예정이다. /문형철 기자

“전통시장 농축산물 30% 할인 받으세요”

농식품부 ‘농할 갑시다’ 쿠폰행사

코로나19에 대응해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30% 할인쿠폰 등 다양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를 할인해주는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할인쿠폰행사가 올해 1월부터 다양한 유통업체들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인을 30%로 상향했으나, 시장내 점포들이 할인행사를 하기 위한 판매정보관리시스

템(POS)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최근 전통시장 내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수단인 ‘제로페이’와 코로나19 온택트(Ontact) 환경을 반영한 전통시장 배달 대형 앱(App) ‘놀러와요 시장(농장)’을 활용해 소비 쿠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제로페이 앱을 통해 2000여개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가맹 농축산물 판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할 모바일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